

제9장

미나마타재생에 몰두

환경모델도시(국제환경도시)만들기

미나마타시의회는 1992년6월25일,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살린 지역만들기의 지침으로써 ‘환경,건강,복지를 소중히 하는 지역만들기 선언’을 결의하였습니다.

또,미나마타시는 같은 해 11월14일,심각한 산업공해의 체험을 인류에게의 경종으로,미나마타병의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결의와 함께,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의 행동지침으로써 ‘환경모델도시만들기’를 선언하고,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것에 입각하여,미나마타시는 1996년1월, ‘환경,건강,복지를 소중히 하는 산업문화도시>을 장래의 도시상으로 하는 제3차미나마타시 종합계획을 책정하여,3월에는 환경기본계획을 정한 것으로 인해 환경모델도시 만들기의 구조가 정리되어 분명해져서,미나마타재생을 향하여 아주 큰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미나마타시는,이 구조에 근거하여,장래의 도시상에 입각하면서,행정과 시민이 일체가 되어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환경모델도시를 목표로 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재활용,줄이기

미나마타시에서는,가정쓰레기줄이기,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8월부터 쓰레기분별 수집을 개시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2개 분별을 실시,철저하게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쓰레기줄이기대책과 정밀도가 높은 재활용을 추진하여,최종적으로는 폐기물제로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가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 ‘지구환경협정’제결의 지원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해가기 위해,환경에 관한 생활규칙을 정하는 ‘구환경협정’의 제결에 대하여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8지구에서 제결되었습니다.

●동네전체가 생활박물관

취락을 그대로 생활박물관으로 하여,4지구를 ‘동네 전체가 생활박물관’에 지정,지구의 생활을 조사하면서 안내하는 ‘생활학예인’과 물건만들기의 ‘생활장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7년7월 현재 생활학예인은 40명,생활직인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습 인정제도

자원절약하기,쓰레기줄이기등 환경에 배려한 가게만들기를 하고있는 점포를 ‘자연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말까지 16점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ISO14001의 인정취득으로부터 자기선언에

미나마타시는,1999년2월23일,미나마타시시청의 사업활동,서비스 등에서 환경보전과 개선을 계속실시,유지해 나가기 위해 정한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에 대하여,국제규격인 ISO14001의 인정을 취득하였습니다.자치체에서는,현내 최초,전국에서는 5번째로 되는 취득으로 되었습니다.당시으로써,다른 자치체에 비교해서 먼저 국제규격으로써의 ISO를 취득하여,지역이미지 향상과 환경모델도시만들기의 보급계발,대폭적인 경비삭감, 직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조 등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그 후,활동을 충실시키기 위해,2003년9월에 자기선언을 진행하여,시민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가정판ISO’ ‘학교판환경ISO’제도의 실시

미나마타시가 ISO14001의 인정을 취득한 것으로 인해,이 수법을 근원으로 하여,각자의 행동목표를 내걸고, 환경에 배려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80여건을 초과하는 가정과 시내의 초중학교(16교)를 시장이 인정하고,환경을 배려한 생활하기,학교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오톱(Biotop)의 창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그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써, ‘생물이 생존하는 장소=비오톱’의 정비를 199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공생모델지역의 형성

지역주민들이 환경공생형의 지역만들기에 몰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모델지역을 공모,선정하고,사업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마이스타 인정제도

유기무농약과 자연소재의 이용등 환경과 건강에 배려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환경마이스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1998년에 시작되어,2007년10월 현재 일본 종이뜨기장인, 차재배인, 벼재배인 등 28명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치체 회의의 개최

환경정책 본연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제8회환경자치체회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전국50여개 자치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70여개의 단체의 관계자들 약1000명이 참가하여,2000년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나마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1세기에의 선언’을 테마로,시내 6회장에서 ‘주민참가와 협동의 지역만들기’ ‘환경자치체만들기 시스템-ISO’ ‘쓰레기줄이기와 분리배출,재활용추진’등 21개 테마별로 분과회가 열려,환경도시만들기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제6회 수은국제회의 개최

세계의 수은연구자들이 모여 제6회수은국제회의가 2001년10월15일부터19일에 거쳐서 미나마타문화회관, 미나마타시종합 ‘모야이’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9개국으로부터 412명이 참가하여, ‘건강’ ‘대기’등 5분야 535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미나마타시장은 ‘환경모델도시에 도전’의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통역을 비롯한,여러 자원봉사자가 대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어,해외로부터의 참가자와 시민과의 국제교류도 깊어졌습니다.

●세계지방도시 십자로회의 개최

‘환경수도를 목표로하는 지역만들기’를 테마로 제14회 세계지방도시 십자로회의가 자치체 관계자들과 시민900명이 참가하여 2007년 2월10일부터 11일에 거쳐서 미나마타시문화회관을 주요한 회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기조공연뒤, ‘환경을 배려한 산업활동’ ‘쓰레기감량하기 위한 생활환경만들기’ ‘시문화 환경을 생각하다’ ‘환경을 테마로한 교류’의 4개의 분과회가 열려,지속가능한 시회의 실현을 목표로한 지역만들기에 몰두하는 해외5개도시,국내5개도시,민간8단체가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내보았습니다.



환경창조 미나마타추진사업

환경창조 미나마타추진사업은,미나마타만 매립지활용,정비를 도모하면서,지역주민의 연대를 기본으로 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구마모토현과의 공동사업으로써,19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많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와 미나마타병문제를 정면으로 확인한 시민의 모임등을 통해,미나마타병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시민상호의 이해 및 대외적으로는 이미지전환을 도모하는 등,미나마타재생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미나마타지역에서 지금까지 미나마타병과 정면으로부터 마주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피해왔던것 들을 사람들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여러가지 활동에 환자,시민,행정이 같이 움직인 ‘모야이 나오시’가 추진되어,1998년에 사업으로써는 종결되었지만,미나마타재생활동의 큰 발디딤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는 형식으로1999년부터 새롭게 미나마타 환경공생추진사업을 개시하여,미나마타병문제의 이해촉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과 미나마타의 내일을 말하는 청년의 저녁모임 (1994년 7월)

‘모야이 나오시’센터 건설

미나마타시 종합 모야이 나오시 센터 “모야이관”과 미나마타시 남부 모야이 나오시 센터 “오렌지관”이 1995년의 12월의 미나마타병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서 건설되었습니다. 지역의 유대를 도모하는 교류장이나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 종합 모야이 나오시 센터 ‘모야이 관’



미나마타시 남부 모야이 나오시 센터 ‘오렌지 관’